AI PE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4/6~4/10)

"유가와 달러, 반도체 사이에서 돈이 몰릴 곳은? …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주 한국 증시를 결정한다."

- 전쟁의 공포를 넘어 실적의 실체로: 안개 속 드러나는 본질
- 슈퍼 위크의 개막: 삼성전자 실적부터 미국 CPI 까지 '운명의 5 일'
- 달러 향방에 따른 유연한 대응: 낙폭 과대주의 기술적 반등에 주목
- 삼성전자·KB 금융만 보시나요? 이번 주 반드시 담아야 할 관심 종목

매크로 불확실성의 가격 반영 완료와 이익 기반의 수급 재편

전쟁의 공포를 넘어 실적의 실체로: 안개 속 드러나는 본질

이번 주(4/6~4/10) 한국 증시의 핵심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된 이후, 이익 기반으로 수급이 재편되는지 여부이다. 시장은 이제 지정학 리스크의 발생 여부 자체보다, 유가와 달러의 안정 수준, 그리고 기업 실적이 비용 부담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이 비용 부담을 이겨낼 체력이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는 구간에 진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슈 등 지정학 리스크의 추가 확산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실적의 실체'를 증명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이동하고 있다.

실적·물가·통화정책 이벤트의 연쇄 반응

슈퍼 위크의 개막: 삼성전자 실적부터 미 CPI 까지 '운명의 5 일'

금주 주요 증시 이슈는 촘촘하게 배치된 실적·물가·통화정책 이벤트의 연쇄 반응이다. 7 일(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필두로, 9 일 미 FOMC 의사록, PCE 물가 및 GDP 확정치, 그리고 10 일 한국은행 금통위와 미국 CPI 발표가 이어진다. 이는 매크로 변수(물가/금리)와 마이크로 변수(실적)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지수 전체의 향방보다는 호실적이 예고된 업종과 지표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장세'가 극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주도주 홀딩 속 실적 개선주로의 전략적 확산

달러 향방에 따른 유연한 대응: 낙폭 과대주의 반등 탄력을 잡아라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주도주 홀딩 속 실적 개선주로의 전략적 확산' 스탠스가 필요하다. 반도체라는 확실한 메인 엔진을 유지하되, 최근 1 주일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2 차전지, 에너지, 증권 업종을 보조 엔진으로 장착하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는 주 중반까지는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한 눌림목 매수로 대응하며, 달러의 향방에 따라 기계·바이오 등 낙폭 과대주의 반등 탄력을 활용하는 유연함이 요구된다.

실적 상향이 뚜렷한 반도체, 증권, 에너지, 2 차전지 장비 등

삼성전자·KB 금융만 보시나요? 이번 주 반드시 담아야 할 관심 종목

투자 유망 섹터는 실적 상향이 뚜렷한 반도체, 금융, 증권, 에너지, 상사, 2 차전지 장비를 꼽는다.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KB 금융, 삼성증권** 등 이익 가시성이 높은 대형주와 더불어, 방산/지주의 **한화**, 물류 자동화의 **현대무벡스**, 비철금속 시황 수혜주인 **풍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 모멘텀을 보유한 **씨아이에스**를 포함한 10 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주 5 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5,500 ~ 5,900 pt

이번 주 코스피는 5,500~5,900 선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벤트 결과에 따라 상단 6,000 선 테스트 또는 하단 5,400 선 지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현재 시장은 절대적인 지수 레벨 자체보다, 이익 방향과 달러 흐름이 시장 밴드를 다시 설정하는 국면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즉 밴드는 결과이며, 핵심은 펀더멘털과 매크로 변수의 방향이다.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삼성전자 실적은 시장의 1 차 분기점이다.** 현재 이익 추정치는 이미 상향된 상태이며, 실제 실적이 높아진 기대를 확인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급 재 집중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소부장, 장비, IT 하드웨어까지 연쇄적인 상승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미국 물가지표와 FOMC 의사록은 금리 자체보다 달러 방향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지표의 방향은 단기 시장 변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셋째, 한국은행 금통위는 국내 수급 구조에 영향을 준다. 금리 방향보다 통화 스탠스가 중요하며, 긴축적 해석이 강화될 경우 금융주 중심, 완화적 해석이 나올 경우 성장주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반도체 외 업종으로 이익 상향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반도체 외에도 2 차전지, 에너지, 증권 등에서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단일 업종 중심이 아닌 다중 업종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정학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했으나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지정학 변수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에너지와 방산은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장 내 방어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상승 요인

1. 반도체 실적 상향 사이클 지속: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가격 반등과 AI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업종을 넘어 코스피 전체 EPS 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가장 강한 펀더멘털이다.

2.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회복: 유가와 전쟁 리스크가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시장 할인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동일한 이익에서도 PER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반도체와 성장주 중심으로 리레이팅 여지를 만든다.

3. 이익 상향 업종 확산에 따른 순환매 강화: 반도체뿐 아니라 2 차전지, 에너지, 증권 등으로 이익 개선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단일 주도주에서 다중 축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개별 종목 중심 장세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하락 요인

1. 유가 고점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금리 기대를 자극한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주식 멀티플을 압박하는 부담 요인이다.

2.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약화: 환율 상승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 압력을 높이며, 특히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지수와 밸류에이션 모두에 부정적이다.

3. 높아진 실적 기대에 따른 조정 리스크: 현재 시장은 실적 개선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 기대 대비 결과가 미달할 경우, 실적이 양호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변수 요인

1.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반도체뿐 아니라 시장 전체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핵심 이벤트다.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지수 상단이 열리고, 미달 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2. 미국 CPI 와 인플레이션 경로: 유가 상승에도 CPI 가 안정적이면 시장은 금리 부담을 낮게 인식한다. 반대로 물가 상승이 확인될 경우 금리 경로 재조정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

3.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 조합 변화: 달러와 물가 흐름에 따라 업종 간 상대 강도가 달라진다. 달러 강세·인플레이션 상승 구간에서는 에너지·원자재가, 안정 구간에서는 반도체·성장주가 유리한 구조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투자 유망 섹터는 우선 **반도체**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이익 상향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 증시 이익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과 증권**이다. 거래대금과 자금 이동이 활발한 국면에서는 증권주가 실적과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고, 은행주는 배당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방어력과 매력을 동시에 가진다.

세 번째는 **에너지와 상사**다. 유가 급등이 아니라 높은 유가 수준의 지속만으로도 자원 트레이딩과 에너지 스프레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2 차전지와 장비**다. 이번 주 직접적인 주도 업종은 아니더라도, 2026 년 이익 상향과 업황 바닥 통과 기대를 선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반도체 외 업종으로의 확산매가 나타날 때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주요 관심 종목 및 포인트]

관심 종목

삼성전자(005930)는 이번 주 최우선 관심 종목이다. AI 수요, DDR4 가격 상승, NAND 업황 개선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으며, 4 월 7 일 잠정실적이 국내 증시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KB 금융(105560)은 NIM 상승, 판관비 감소, 충당금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이다. 이번 주 금통위와 환율 변수를 고려하면 금융주의 상대 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LX 인터내셔널(001120)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자원 트레이딩 마진 확대 기대가 유효하다.

리노공업(058470)은 AI 및 고성능 반도체 확대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주다.

케이엠더블유(032500)는 미국 주파수 경매와 통신사 CAPEX 확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다.

현대무벡스(319400)는 스마트 물류·자동화 테마 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삼성증권(016360)은 리테일과 IB 시너지 기대, 고액자산가 고객 증가에 따른 구조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한화(000880)는 방산과 지주회사 재평가 관점에서 관심이 유효한 종목이다.

풍산(103140)은 비철금속 시황과 방산 노출도를 함께 보유한 종목으로 관심이 유효하다.

씨아이에스(222080)는 2 차전지 장비 업종의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

[표 1] 금주 관심 종목 10 선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102,236.6	186,200	+3.62
105560	KB금융	은행	54,249.7	145,500	-4.40
001120	LX인터내셔널	상사,자본재	2,058.2	53,100	+14.44
058470	리노공업	반도체	8,413.8	110,400	+5.24
032500	케이엠더블유	IT하드웨어	1,182.5	28,500	-3.23
319400	현대무벡스	기계	3,040.6	27,300	+5.81
016360	삼성증권	증권	8,340.6	93,400	-4.30
000880	한화	상사,자본재	8,522.8	113,700	+1.97
103140	풍산	비철,목재등	2,712.8	96,800	+5.56
222080	씨아이에스	IT가전	907.7	11,670	-4.50

자료: 독립리서치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및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글로벌 경제지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다시 반등하고 고용은 아직 견조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4/6(월)	ISM 비제조업지수(3월)	54.8	56.1	서비스업 확장은 유지되나,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것으로 해석
4/9(목)	FOMC 회의록			연준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가속 위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
	근원 PCE MoM(2월)	0.4%	0.4%	연준이 중시하는 데이터로 예상대로 높게 유지돼 조기 금리인하 기대 제약
	근원 PCE YoY(2월)	**3.0%**	**3.1%**	**소폭 낮았지겠지만 목표 2%를 크게 웃돌아 연준이 안심하기엔 이른 수준**
	GDP QoQ(4분기)	0.7%	0.7%	성장률이 낮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0K	202K	절대 수준이 여전히 낮아 노동시장 급랭이 아닌 완만한 냉각
4/10(금)	CPI MoM(3월)	1.0%	0.3%	월간 물가가 크게 튀어 단기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를 강하게 자극
	근원 CPI MoM(3월)	0.3%	0.2%	헤드라인뿐 아니라 근원도 다시 높아져 서비스·주거 중심의 물가 불안
	CPI YoY(3월)	**3.4%**	**2.4%**	**전년 대비 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 가능성**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는 54.8 로 예상치 56.1 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확장 구간을 유지했다. 이는 서비스업이 아직 확장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의 모멘텀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4 분기 GDP 가 0.7%로 낮게 유지된 점은 **경기 모멘텀이 이미 상당히 둔화됐음을 재확인**한다.

그런데 같은 주에 3 월 CPI 가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3.4%로 뛰고, 근원 CPI 도 0.3%로 직전 0.2%보다 높아졌다. 즉 경기 둔화만 놓고 보면 연준 완화 기대가 커져야 하지만,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연준의 정책 여지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는 2 월 기준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4%로 여전히 목표를 웃돈다.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0K 로 직전 202K 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주 매크로 조합은 **"성장은 약하고, 고용은 둔화됐지만 버티고, 물가는 다시 불안해졌다"는 다소 불편한 그림**이다. 시장은 경기침체에 일방적으로 베팅하기에도, 금리 인하를 낙관하기에도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및 관전 포인트 등

일자	종목	관전 포인트
4/8(수)	델타항공(DAL)	프리미엄·기업 여행 수요가 유지돼도 연료비 급등이 이익률을 압박하는지가 핵심
4/8(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STZ)	Modelo·Corona 중심의 맥주 수요 방어력과 소비층 가격 민감도가 핵심 변수
4/9(목)	프로그레시브(PGR)	보험료 인상 효과와 낮은 결합비율 유지 여부가 방어적 실적 지속성을 결정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4 월 실적 장세의 서막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 델타항공(DAL)은 여행·항공 수요와 연료비 부담을 통해 실물 경기의 체감을 보여주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STZ)는 맥주·주류 소비를 통해 미국 내 소비 여건과 히스패닉 소비층의 체력을 드러내며, 프로그레시브(PGR)는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과 보험료 인상 효과를 통해 가계·차량·보험 시장의 가격 전가 구조를 보여준다.

즉 이번 조합은 **서비스 소비, 방어적 소비, 금융성 가격 전가 구조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구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의 핵심은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가"보다 **어느 부문은 견조하고, 어느 부문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있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